

대학 내 이동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보행환경 개선해야

대학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도 부족해 운행 차량 대부분이 과속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의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대학 내 이동로는 이런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_ 이소연 대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보도·차도 미분리 등 교통사고 위험 높아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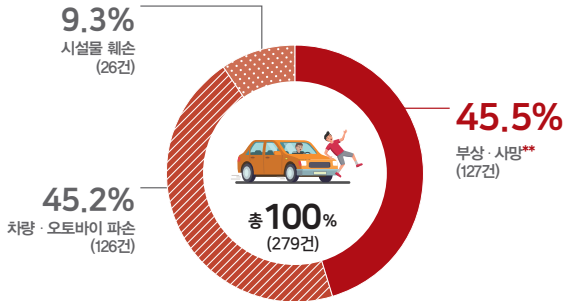
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다.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1km/h에 달했고,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 20개 대학 내 보행·운전 경험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역에 대해 질의하여 선정

** 대학 정문 주변에 속도제한 표지가 있는 17개 대학 내 주행 차량 및 오토바이 (대학별 30대씩)

대학 내 교통사고 피해내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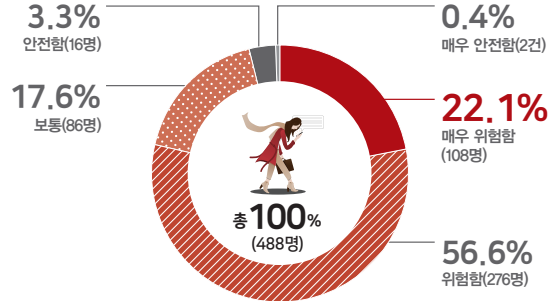
[단위 : %, 건]



* 최근 3년간 (15년~17년) 발생한 대학 내 교통사고 394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 분석(중복집계) ** 사망 : 2건

대학 내 보행 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위험인식도*

[단위 : %, 명]



* 미응답자 12명 제외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 안내 등 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걸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10명 중 2명은 대학 내 교통사고 위험을 느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으로, 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오토바이 파

손'이 126건(45.2%)을 차지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20개 대학 내 학생 및 일반인) 중 6명(1.2%)이 대학 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미경험자 444명(미응답자 제외) 중 102명(23%)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별 20분 동안 특정 차도 내 단독 보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 여부 조사

** 차량 및 보행자 등의 출입이 많은 대학 정문 주변에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표지 설치 여부 조사

***국공립·사립대 캠퍼스 내 교통사고 현황(김병욱 의원실 자료)

도로교통법 사각지대, 대학 내 이동로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교통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교통안전요원 배치, 캠페인 실시 등 교통안전 환경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 특히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학 내 보도·차도에 대한 안전인식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합계
보행 중 보도가 단절되어 차도로 횡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보행 시 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208 (41.9)	161 (32.4)	128 (25.7)	497* (100.0)
대학 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 보행 시 위험을 느낀다.	177 (35.6)	154 (30.9)	167 (33.5)	498** (100.0)

* 미응답자 3명 제외 ** 미응답자 2명 제외